



14면

산민 한승헌 변호사 2주기 추모식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4년 4월 23일 화요일 (음 3월 15일) 제3490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형 스마트공장 멘토 출범 및 삼성 스마트팩토리 아카데미 현판식

2024. 4. 22. (화) 전북특별자치도 SAMSUNG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센터

22일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열린 전북형 스마트공장 멘토그룹의 사무실인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센터'와 스마트공장 교육을 위한 '삼성 스마트팩토리 아카데미 전북캠퍼스' 현판식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삼성전자 박승희 CR담당 사장, 김동욱 ESG&스마트공장 지원센터장(삼성전자 부사장), 임재훈 상생협력센터장(삼성전자 부사장), 최형열 도의회 농산업경제 부위원장, 정철영 (사)전북-삼성 스마트CEO 포럼 대표 등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삼성, 도내 중소기업 제조혁신 '밀고... 당기고...'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센터 문 열다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기업 삼성전자 등 대기업 출신 전담 멘토로부터 혁신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받는 전용 캠퍼스가 문을 열었다.

전북자치도는 22일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전북형 스마트공장 멘토그룹의 사무실인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센터'와 스마트공장 교육을 위한 '삼성 스마트팩토리 아카데미 전북캠퍼스'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판식에는 김관영 전북자치도 지사와 삼성전자 박승희 CR담당 사장, 김동욱 ESG&스마트공장 지원센터장(삼성전자 부사장), 임재훈 상생협력센터장(삼성전자 부사장), 최형열 도의회 농산업경제 부위원장, 정철영 (사)전북-삼성 스마트CEO 포럼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스마트 제조혁신은 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융합해 제품개발, 제조공정, 유통관리, 기업 경영방식 등을 개

전북자치도, 대기업 출신 제조혁신 전문가 30명 채용
'삼성 스마트팩토리 아카데미 전북캠퍼스'도 함께 개소
도내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등 위한 교육 공간으로 활용

선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지난해 전북자치도와 삼성전자, 14개 시군, CEO포럼 등은 전국 최초로 민관 상생의 지역특화 전북형 스마트 제조 혁신 프로젝트를 뜻을 모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은 행·재정적 지원을, 삼성전자는 혁신 기술과 성공 노하우 전수를, 민간기업 대표로 이루어진 CEO포럼은 기업에 대한 사업 홍보 등을 맡고 있다.

여기서 나아가 전북자치도는 다른 지자체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달리 대기업 퇴직자 등 스마트공장 전문가 30명을 별도로 채용해 기업의 현장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지난 2월 채용된 전담멘토는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컨설팅과 사업계획 현지실사로 제조 현장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들은 지원기업이 선정되면 6~8주간 대상 기업에 상주하면서 현장을 진단하고, 공정 최적화 및 제조 노하우 전수 등을 통해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끌어낼 예정이다.

이날 스마트 제조혁신 센터와 함께 개소를 알린 삼성 스마트팩토리 아카데미 전북캠퍼스는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한 전진기지다.

올 들어 도내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스마트공장 구축과 유지·관리 인력양성을 위한 별

도의 공간 조성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기존 전북테크노파크 벤처지원동 1층과 2층의 유휴 회의실을 리모델링해 교육 공간으로 활용한다.

전북자치도와 삼성전자는 삼성 스마트팩토리 아카데미를 도내 스마트공장 구축기업뿐만 아니라 관심 기업, 인근 충청권의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을 위한 교육 공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형 전담멘토와 함께, 삼성 스마트팩토리 아카데미가 문을 열어 제조혁신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도내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함께 성공의 스토리를 창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박승희 사장은 "오늘 개소한 스마트팩토리 전북캠퍼스를 기반으로 스마트공장의 중요 포인트인 인력양성을 적극 지원해 전북형 제조혁신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재훈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관영 도지사와 차담

조국 "당의 목표는 균형발전" 김관영 "사회 변화시킬 촉매"

조국혁신당 당선인들, 전국 순회 첫 일정으로 전북 방문

조국혁신당 당선인들이 22일 전국 순회 중 첫 일정으로 전북을 찾은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차담을 가졌다.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조국 대표는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만나 "민주당은 물론, 조국혁신당 양쪽과 소통하자"며, "조국혁신당이 추구하는 목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총예산의 양과 그 속도가 비례해서 증가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며 "전북특별법의 통과에 경사스럽지만, 재정 문제가 약하다고 보인다"고 현안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는 당연히 전북도와 저희가 협의해야 할 상황"이라며 "재만금을 포함해서 여러 전북도의 일은 조국혁신당 정도상 전북도당 위원장과 강경숙 당선인을 포함해 수시로 만나고 소통하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 지사께서 민주당은 물론이고 조국혁신당 양쪽 모두 소통하고 의견 수렴해서 전북도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면 저희는 충분히 협조하고 협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에 앞서 인사말을 연 김관영 도지사는 "조국혁신당의 당선인들이 전국 순회 중에 전북을 처음 방문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며 "총선 과정에서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국민들의 큰 기대와 성원에 힘입어 좋은 성과를 거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12명의 당선인은 다양성과 전문성, 사회적 영향력 등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기대하는 인물들"이라며 "국회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조국혁신당에서 제기했던 많은 문제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단합시키는 좋은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며 "전북의 발전도 부각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올해 24개 국제·전국대회 전주서 개최

대한불림협회장배 전국대회·대통령배 전국수영대회 등

전주시는 올해 22개 종목의 24개 국제·전국규모 대회가 전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러한 대규모 체육행사의 경우 전국 각지의 선수들은 물론 선수단과 가족, 관람객들이 대거 전주를 찾아 숙식을 해결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지난 13일에는 어린이부터 시니어까지 전국 남녀노소 비독인들이 '제25회 이창호배 전국아마비독선수권대회'에 참가했다.

또한 오는 6월과 8월에는 각각 전국의 불림 학생 선수들이 모여 경쟁하는 '제25회 대한불림협회장배 전국불림대회'와 전국의 수영 엘리트 선수들이 모여 경쟁하는 '제43회 대통령배 전국수영대회' 등 대규모 행사가 전주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올해 전주에서는 △제18회 회장배전국스키선수권대회 △제5회 전주한옥마을 전국스포츠클라이밍대회 △2023 전주월드인라인아이스하트대회 등 크고 작은 각종 전국단위 대회가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회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도 개최 예정인 국제·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대회 유치를 위한 공모는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전주시 개최 및 전주시의 지원을 희망하는 대회 담당자는 전주시체육회에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익구 기자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

전주매일 캠페인